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역인 온타리오 주 Sault Ste. Marie 도시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작으며 시설은 쾌적합니다. 따라서 쉽게 적응하기 편하고 오래 머무를수록 정감이 가는 대학입니다. 학교 학생들 및 교사들도 친절하며 잘 대해줍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은 크게 4가지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수업은 3주간 Memory book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수업, Speaking & Listening 수업, Reading & Writing 수업, Grammar 수업입니다. 수업 교재는 다 유인물 형식이며, 수업 강의는 주로 피피티로 이루어졌습니다. 등교 첫 날에 레벨테스트를 보아 Intermediate과 Academic으로 수업을 분반하였고, 강사 분들은 대체로 캐나다 출신으로 항상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셨습니다. 과제도 과목 별로 수업 한 개당 하나씩 있어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수업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되었고, 수업 내용의 양이나 진도 속도도 적절했습니다. 하루에 수업은 적으면 1개, 많으면 4개까지 들었으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로 8시 반부터 4시까지였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Activity는 겨울에 맞게 다양한 겨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말 썰매 타기(Mockingbird Hill Sleigh Ride), 시내 구경(Downtown Tour), 스키

	타기, 알파카 농장 가기(Alpaca Farm), 개썰매 타기(Dog-sledding), 스시 먹기, 봉사활동(Kindergarten, Global Friends, Retirement Centre), 하키 경기 관람, 한국음식 대접(K-Lunch) 등을 즐겼고, 스키타거나 썰매 탈 때에는 스노우 팬츠, 모자, 장갑, 부츠가 필수 준비물이었습니다. 스노우 팬츠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아빠가 빌려주셨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류를 했는데, 한 번은 유치원에 가서 또 다른 한 번은 Career Centre에 가서 영아 및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국 관련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예를 들어 한글 이름 적여주기, 한복 입히기 등)들을 했었고, 마지막 한 번은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 기관에 가서 Aloha 파티를 열었습니다. Activity 활동을 하는 데에 따로 추가 비용을 낸 적은 없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겨울이라 눈이 많이 내리고 때로는 바람까지 불어 눈보라가 칠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한 번 올 때 많이 오는 편이라 길가에 눈이 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흔한 모습입니다. 또한 추위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라 내복(ex 히트택)과 부츠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제가 만났던 Sault Ste. Marie 도시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선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도시라 치안도 잘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학교에서 차로 10분, 버스로는 15분(+도보 5분) 거리인 홈스테이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홈스테이 집은 크기가 아담했으며 불빛도 주황빛이 돌아 아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층에는 부엌, 거실, 화장실 그리고 딸과 일본인 유학생과 저를 위한 방 3개가 있었고, 지하에는 부모님들이 주무시는 방과 화장실, 세탁실, 그리고 큰 TV에 소파 3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꼭 지켜야할 만한 규칙은 없었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 부엌 서랍 속에 있는 쓰레기통에 접근하지 못하게 쓰레기를 버린 뒤에는 반드시 서랍 문고리를 줄로 묶어둬야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건기식이라 샤워를 할 때에는 욕조 옆 이중커튼을 치고 속에 있는 커튼은 밖으로 빼내지 말고 안에 뒤야 했습니다. 홈스테이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제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늑했고, 3주동안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편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다 홈스테이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요플레에 시리얼과 과일을 얹어서 먹었고, 평일에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으며 저녁은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홈스테이 엄마, 아빠께서 요리를 잘하셔서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등교 같은 경우, 평일에 수업이 8시 반에 시작하면 홈스테이 엄마께서 차로 데려다주셨고, 11시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교 같은 경우는 주로 집 방향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평일에 버스는 오후 6시까지 30분에 한 번꼴로 오고 그 이후부터는 1시간에 한번 꼴로 옵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버스가 늦거나 하지 않고 제때에 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외부 식당	80 달러	
기념품	30 달러	
학교 식당 및 카페	20 달러	
기타	15 달러	
합계	145 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그 도시의 날씨, 학교 위치 등 학교에 대한 정보,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은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봅니다. 파견가기 전에 홈스테이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인사를 미리 나누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는지 몰라서 부츠를 안 챙겨갔는데, 다행히 홈스테이
--

엄마가 부츠를 빌려주셔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파견 간다면, 부츠를 꼭 챙기길 권해드립니다. 신고 간 운동화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거의 신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츠가 필수적이니 신고가거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팁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맥도날드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고 손님이 서빙을 제공받는 외부 식당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에 15퍼센트 정도 팁을 더해서 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와 매우 다른 점이니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짧은 3주라는 기간 동안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했고, 홈스테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과 동네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잘 대해줬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하더라도 따뜻하게 입고 다닌다면 적응할 수 있는 날씨입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캐나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 캐나다 동계 어학연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를 계기로 얻고자 했던 것은 영어 말하기 실력인데, 실력을 늘리기에는 3주라는 기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영어로 대화하며 현재 영어 실력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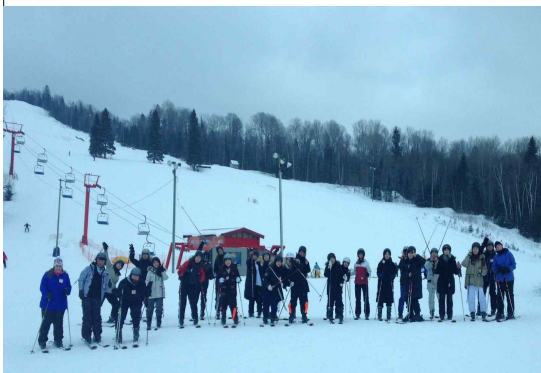
홈스테이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캐나다인들의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캐나다가 다국적 국가인 만큼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 또는 이민 온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ESL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고, 학교 측에서 마련한 다양한 Activity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겨울 활동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3,4학년이 되면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그 목표가 더 뚜렷해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학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영어실력을 갈고닦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온다면, 방학 때 시간을 내어 온타리오 주 Sault. Ste Marie 에 여행 겸 와서 이번 어학연수 때 머무른 홈스테이에 다시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Retirement Center	스키 타기
	
말 썰매 타기	시내 구경
	
알파카 농장	하키 경기 관람